

## 청소년 폭력에 있어서 피해-가해 경험의 발전\*

박 순 진\*

### 국 | 문 | 요 | 약

청소년 폭력에 있어 가해와 피해가 중첩되어 있다는 사실은 기존의 국내외 연구에서 여러 차례 지적된 바 있다. 이 논문은 기존 연구에서 제대로 다루어지지 않았던 시간의 흐름에 따른 피해-가해 유형의 변화 내지 발전에 대해 분석하고 있다. 분석에는 한국청소년패널조사 중학교 2학년 패널의 1차 연도부터 5차 연도까지의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청소년 폭력에 있어 피해 경험 유무에 따른 가해 경험 유무를 검토해본 결과 5개 연도 모두 피해 경험이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가해 경험이 있는 비율이 일관되게 높았다. 청소년 폭력에 있어서 피해자와 가해자는 엄격히 구분되는 별개의 행위자라고 볼 수 없으며 가해자의 일부는 다른 경우에 폭력의 피해자가 되기도 하였다.

피해 경험 유무와 가해 경험 유무에 따라 집단 유형을 넷으로 구분하여 비교 분석해본 결과, 비행 관련 요인에 있어서 네 집단은 두 개의 하위 집단으로 구분되었다. 청소년 폭력에 있어서 피해자는 가해 경험의 유무에 따라 이질적인 두 집단으로 구분된 반면 가해자는 피해 경험의 유무와 무관하게 동질적인 하나의 집단이라고 판단할 수 있었다.

집단 유형의 분포 변화를 분석한 결과 청소년 폭력은 가해와 피해 모두 만성적이고 고착화된 형태를 보이지는 않았다. 다만, 유형III에 해당하는 가해자의 경우 다른 집단에 비해 고착화될 가능성이 높았다. 청소년 폭력과 관련하여 가장 주의해야 할 시기는 가해와 피해 모두 고등학교 1학년에서 2학년으로 진급하는 시기라고 평가할 수 있었다.

❖ 주제어 : 청소년 폭력, 학교 폭력, 가해-피해 연계, 범죄피해, 한국청소년패널조사

\* 이 논문은 2007학년도 대구대학교 학술연구지원(연구년)에 의해 작성되었음. 이 논문은 한국사회학회에서 주최한 2008 후기 사회학대회에서 발표한 내용을 수정·보완한 것임.

\*\* 대구대학교 경찰행정학과 부교수, 사회학박사.

## 1. 들어가는 말

청소년 비행이나 범죄에 있어서 가해자와 피해자는 흔히 서로 다른 부류의 행위자로 인식되곤 한다. 청소년 비행이나 범죄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을 비롯하여 정책 학교 당국, 정책 당국의 입장은 대체로 이런 인식에 바탕을 둔 경우가 많다. 청소년 범죄를 둘러싸고 종종 이야기되는 ‘나쁜 범죄자’와 ‘선량한 피해자’라는 식의 용어법은 이런 이분법적 인식을 잘 드러내준다. 자녀 문제로 학교에 상담하러 온 부모들이 ‘우리 아이는 착하고 문제가 없는데’ 식으로 이야기 하는 태도 역시 이런 인식의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만약 그렇다면 비행 청소년 내지 범죄 청소년은 일반 청소년과 다른 부류의 존재인가? 이 논문은 청소년 범죄자 내지 청소년 범죄에 있어서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또는 가해와 피해의 연관성에 대한 일반적 인식을 뒤집어서 검토해보고자 하는 의도에서 출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국내의 조사 결과들을 보면 청소년의 학교 폭력의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가 서로 알고 지내던 사이에서 발생하는 비율이 낮지 않고, 이들의 인구학적 특성이나 사회경제적 배경이 상당히 유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김준호 등, 1997; 김준호·황지태, 2002; 노성호·이성식, 2003; 기광도, 2004). 가해자와 피해자의 특성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유사성은 국외의 연구에서도 드물지 않게 보고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 학자들은 특히 청소년 폭력 범죄에 있어서 가해자와 피해자의 근접성이 높다는 사실을 주목하거나, 생활양식에 있어서의 유사성으로 인해 시간적, 공간적 수렴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기도 하며, 한 걸음 더 나아가 가해자와 피해자가 실재에 있어서는 동일 집단이라는 가설을 제시하는 경우도 있다(Singer, 1981; McDermott, 1983; Lauritsen 등, 1991).

청소년 폭력에 있어서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를 주목한 이들 연구들 가운데 일부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중첩되거나 연관성이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는데 그치지 않고 이를 설명하고자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의 연구들은 가해와 피해의 관련성을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라는 관점에서 파악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청소년 비행은 개인의 생애주기를 통해 발전하고 청소년 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과정은 각 연령단계 마다 상이하게 작용하며, 반사회적 행동의 발전이나 범죄 경력의 발전 과정은 청소

년의 성장·발달이라는 맥락에서 파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이론적 주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Thronberry, 1987; Patterson 등, 1989; Moffitt, 1993; Sampson & Laub, 1997). 청소년 비행에 이해하는데 있어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를 주목하는 것이 필요하다면 청소년 비행의 가해와 피해의 관련성을 살피는데 있어서도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를 분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논문에서 분석하는 한국청소년패널조사와 관련하여 기왕에 조사가 완료되어 자료가 공개된 1차 연도, 2차 연도, 3차 연도에 대한 분석을 보면, 그 결과는 청소년 폭력 비행에 있어서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에 대한 국내외의 경험적 연구 결과 내지 이론적 설명에 상당히 부합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박순진, 2005 및 2006a). 즉, 청소년 폭력에 있어서 가해자와 피해자는 서로 중첩될 뿐만 아니라 비행에 관련된 여러 요인에 있어서도 유사성을 가진 것으로 분석되었다. 아울러 가해와 피해가 중첩 내지 연계가 부분적이며 일부에 있어서는 중첩되지 않은 경우가 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이 논문은 한국청소년패널조사가 5차 연도에 걸쳐 완료되어 자료가 공표되었으므로 시간의 경과에 따른 변화의 양상을 살펴보기에 충분한 자료가 축적되었을 것으로 기대하고 시작하였다. 즉, 기존 연구에서 충분히 다루어지지 못했던 시간의 흐름에 따른 피해-가해의 분포 특징과 그 변화 내지 발전의 경과를 보다 깊이 있게 분석해보고자 한다. 먼저, 기존의 연구(박순진, 2005 및 2006a)에서 확인된 가해-피해의 중첩 현상이 청소년의 성장에 따른 비행 관련성의 변화라는 맥락에서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본다. 다음으로 가해 경험과 피해 경험 유무에 따라 집단 유형을 구분하여 비교 분석하고, 각 유형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며 어떤 특징을 나타내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연도별 집단 유형의 분포 변화에서 어떤 특별한 패턴을 발견할 수 있는지 검토해보도록 한다.

## 2. 자료 및 방법

이 논문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실시한 한국청소년패널조사(KYPS) 중학교 2학년 패널의 1차 연도부터 5차 연도까지의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한국청소년패널조사

는 중다전망적 패널설계(multiple point prospective panel design)를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중학교 2학년 패널의 경우 표본으로 선정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표본의 대체 없이 2003년(중학교 2학년)부터 2008년(고등학교 3학년 졸업이후 1년차)까지 6년 동안 반복적으로 추적 조사하는 계획으로 출발하였다(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08).

실제 조사는 2003년 4월 1일 기준 전국(제주도 제외)의 중학교 2학년 청소년을 모집 단위로 하여 층화다단계집락표집(stratified multi-stage cluster sampling)으로 선정된 학생과 그들의 부모를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며, 2003년도에 1차 연도 조사를 시작한다. 이 때 매년 조사가 실시되어 2007년에 5차 연도 조사까지 완료되어 자료가 공개되었다. 1차 연도 조사 결과 3,449명의 청소년과 부모가 최종 표본으로 선정되었으며, 2차 연도 부터는 1차 연도 조사에서 구축된 표본에 대해 추적 조사하였다.

분석에 포함된 자료는 각 연도별로 설문 조사에 협조한 조사 대상자 가운데 이 논문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다섯 가지 폭력 비행의 가해와 피해를 묻는 질문에 대해 전부 대답한 응답자들이다. 분석에 포함된 응답자의 수는 1차 연도의 경우 3,449명이며, 2차 연도 3,188명, 3차 연도 3,125명, 4차 연도 3,121명, 5차 연도 2,967명 등이다. 5개 연도 모두 설문 조사에 협조한 응답자는 조사 대상자 3,449명의 78.9%인 2,121명이다. 다만, 실제 분석에서는 무응답 등의 사유로 인해 사례수가 다소 줄어든 경우도 있다.

이 논문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청소년 폭력의 가해는 1차 연도 설문지의 37번 문항(2차 연도부터 5차 연도는 38번 문항) 14개 항목 가운데 5개 항목으로, 청소년 폭력의 피해는 1차 연도 설문지의 39번 문항(2차 연도부터 5차 연도는 40번 문항) 6개 항목 가운데 5개 항목으로 측정하였다(구체적인 항목은 <표 1>과 <표 2> 참고). 가해와 피해를 측정하는 5개씩의 항목은 각각 대칭적인 다섯 행위를 측정하고 있으며, 5개 연도 모두 동일한 항목을 조사하고 있어 가해와 피해의 경험을 서로 비교하거나 연도별 추이를 살펴볼 수 있다. 이 논문에서 가해와 피해의 경험은 5개의 개별 항목에 대해 경험이 있는지 여부, 각 연도별로 5개 항목 가운데 하나라도 경험이 있는지 여부를 먼저 집계하였으며, 다음으로 5개 연도에 걸쳐 5개 항목 각각에 대해서와 5개 항목 가운데 하나라도 경험이 있는지 여부 등을 분석하였다.

분석에는 SPSS를 이용하였다. 빈도분석과 교차분류표를 통해 가해와 피해의 경험이 항목별로 어떤 분포를 보이는지 검토하였으며, 가해와 피해 경험이 통계적인 관련성이

있는지 검토하기 위하여  $\times 2$  검증을 실시하였다. 가해와 피해 경험 유무에 따라 집단 유형을 구분하였으며, 집단 유형별 응답자 분포가 연도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 보았다. 이렇게 구분된 집단 유형별로 범죄 관련 요인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다중범위검증을 실시하였다. 가해 내지 피해의 경험이 있는 경우 시작 연도와 지속 연도를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연도별 집단 유형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하여 집단 유형별 이입과 이출을 분석하고 각 집단 유형의 분포에 나타난 구체적인 변화 양상을 검토 하였다.

### 3. 분석결과

〈표 1〉과 〈표 2〉는 1차 연도부터 5차 연도까지의 5년간에 걸친 조사에서 나타난 청소년 폭력의 가해 경험과 피해 경험을 다섯 가지 행위 유형에 대해 집계한 것이다. 먼저 가해 행위에 대해 살펴보자. 1차 연도 이래 5년의 기간을 모두 합쳐 청소년 폭력을 해본 적이 있는지 분석한 결과 ‘남을 심하게 놀리거나 조롱하기’가 21.4%로 다섯 가지 폭력 행위 가운데 가장 높은 비율을 기록하였으며, 다음으로 ‘다른 친구를 집단따돌림(왕따) 시키기’ 17.4%, ‘다른 사람을 심하게 때리기’ 13.2% 등의 순서로 집계되었다. 5년의 기간 동안 다섯 가지 행위 가운데 하나라도 해본 적이 있는 조사 대상자는 37.0%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가해 경험이 있는 응답자의 비율을 연도별로 살펴보자. 1차 연도의 경우 다섯 가지 전체로는 29.3%의 청소년이 가해 경험이 있다고 대답하였는데 개별 행위별로는 14.8%(남을 심하게 놀리거나 조롱하기)에서 4.3%(남을 협박하기)에 이르는 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2차 연도의 경우 다섯 가지 전체로는 12.2%의 청소년이 가해 경험이 있다고 대답하였으며 개별 행위별로는 6.2%(남을 심하게 놀리거나 조롱하기)에서 2.1%(남을 협박하기)에 이르는 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5차 연도의 경우 다섯 가지 전체로는 4.3%의 청소년이 가해 경험이 있다고 대답하였는데 개별 행위별로는 2.5%(남을 심하게 놀리거나 조롱하기)에서 0.3%(남의 돈이나 물건을 뺏기)에 이르는 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다섯 가지 가해 행위 가운데 1차 연도 이후 5차 연도에 이르기까지 가장 빠르게

감소한 것은 ‘다른 친구를 집단따돌림(왕따) 시키기’이며 가장 느리게 감소한 것은 ‘다른 사람을 심하게 때리기’이다.

〈표 1〉 가해 행위별 가해 경험이 있는 응답자의 연도별 추이

단위 : 명 (%)

구 분	1차 연도	2차 연도	3차 연도	4차 연도	5차 연도	5년 합계
남을 심하게 놀리거나 조롱하기	512 (14.8)	199 ( 6.2)	132 ( 4.2)	99 ( 3.2)	73 ( 2.5)	580 (21.4)
남을 협박하기	148 ( 4.3)	67 ( 2.1)	35 ( 1.1)	25 ( 0.8)	17 ( 0.6)	182 ( 6.7)
다른 친구를 집단따돌림(왕따) 시키기	489 (14.2)	112 ( 3.5)	65 ( 2.1)	40 ( 1.3)	29 ( 1.0)	472 (17.4)
다른 사람을 심하게 때리기	310 ( 9.0)	147 ( 4.6)	86 ( 2.8)	68 ( 2.2)	59 ( 2.0)	358 (13.2)
남의 돈이나 물건을 뺏기(뺏기기)	189 ( 5.5)	108 ( 3.4)	43 ( 1.4)	21 ( 0.7)	9 ( 0.3)	213 ( 7.9)
가해 경험 (다섯 가지 전체)	1,011 (29.3)	388 (12.2)	231 ( 7.4)	178 ( 5.7)	128 ( 4.3)	1003 (37.0)
전체 유효 사례수	3,449 (100.0)	3,188 (100.0)	3,125 (100.0)	3,121 (100.0)	2,958 (100.0)	2,709 (100.0)

가해 경험에 대한 분석 결과 패널 조사가 실시된 5년의 기간 동안 전체 응답자의 1/3 이상이 폭력의 가해 경험이 있는 것으로 집계되었는데, 연도별로는 조사 대상자가 중학교 2학년인 1차 연도에 1/4 이상의 청소년이 가해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가장 높은 가해 수준을 나타내었다. 조사가 실시된 5년의 기간 전체에 걸쳐 청소년 폭력의 가해 수준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데, 특히 1차 연도에서 2차 연도 사이에 절반 이하로 크게 감소한 것이 두드러진다. 조사 대상 청소년이 고등학교 3학년에 달한 5차 연도의 경우에는 청소년 폭력의 가해를 한 청소년이 응답자의 5%에도 미달하는 수준으로 크게 낮아졌다.

이러한 결과는 폭력 행위를 비롯하여 청소년 범죄가 전반적으로 크게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는 최근 몇 년 동안의 공식통계상의 소년범죄의 추세와 대체로 일치한다(대검찰청, 2007; 법무연수원, 2008). 하지만 패널 조사가 실시된 5년이 청소년이 빠르게 성장하는 중학교 2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의 기간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조사 결과의 분석에서 발견되는 연차에 따른 가해 경험의 감소는 기간 효과에 더하여 연령 효과의 영향도 있을 것으로 추론해볼 수 있다. 가해 행위별 분포의 연도별 변화는 이와 관련되는 것으로 짐작해볼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김성언, 2006; 노성호, 2006; 민수홍, 2006; 박순진, 2006b; 박철현, 2006; 이순래, 2006).

〈표 2〉는 피해 형태별로 피해 경험의 연도별 추이를 집계한 것이다. 먼저 5년의 기간 동안 다섯 가지 피해 형태 가운데 하나라도 당한 적이 있는 조사 대상자는 30.0%인 것으로 집계되었다. 앞서 살펴본 가해 경험과 비교하면 낮은 수준의 피해 경험이 보고되고 있다. 다만 ‘돈이나 물건을 강제로 빼앗기기’의 피해 경험은 ‘남의 돈이나 물건을 뺏기(뺏뜯기)’의 가해 행위에 비해서 거의 두 배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난 점이 주목할 만하다. 1차 연도 이래 5년의 기간을 모두 합쳐 청소년 폭력의 피해를 입은 적이 있는지 분석한 결과 ‘심한 놀림이나 조롱당하기’가 14.9%, ‘돈이나 물건 강제로 빼앗기기’가 14.6%로 다섯 가지 피해 형태 가운데 상대적으로 높은 피해 경험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피해 형태별 피해 경험이 있는 응답자의 연도별 추이 단위 : 명 (%)

구 분	1차 연도	2차 연도	3차 연도	4차 연도	5차 연도	5년 합계
심한 놀림이나 조롱당하기	340 ( 9.9)	166 ( 5.2)	73 ( 2.3)	69 ( 2.2)	38 ( 1.3)	404 (14.9)
협박당하기	161 ( 4.7)	77 ( 2.4)	27 ( 0.9)	17 ( 0.5)	16 ( 0.5)	199 ( 7.3)
집단따돌림 (왕따) 당하기	163 ( 4.7)	52 ( 1.6)	22 ( 0.7)	11 ( 0.4)	11 ( 0.4)	163 ( 6.0)
심하게 맞기(폭행)	145 ( 4.2)	71 ( 2.2)	27 ( 0.9)	21 ( 0.7)	9 ( 0.3)	181 ( 6.7)
돈이나 물건 강제로 빼앗기기	344 (10.0)	151 ( 4.7)	38 ( 1.2)	26 ( 0.8)	7 ( 0.2)	395 (14.6)
피해 경험 (다섯 가지 전체)	761 (22.1)	351 (11.0)	141 ( 4.5)	106 ( 3.4)	63 ( 2.1)	814 (30.0)
전체 유효 사례수	3,449 (100.0)	3,188 (100.0)	3,125 (100.0)	3,121 (100.0)	2,958 (100.0)	2,712 (100.0)

피해 경험이 있는 응답자의 비율을 연도별로 살펴보자. 1차 연도의 경우 다섯 가지 전체로는 22.1%의 청소년이 피해 경험이 있다고 대답하였는데 개별 형태별로는 10.0%(돈이나 물건 강제로 빼앗기기)에서 4.2%(심하게 맞기(폭행))에 이르는 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2차 연도의 경우 다섯 가지 전체로는 11.0%의 청소년이 피해 경험이 있다고 대답하였으며 개별 형태별로는 5.2%(심한 놀림이나 조롱당하기)에서 1.6%(집 단따돌림(왕따) 당하기)에 이르는 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5차 연도의 경우 다섯 가지 전체로는 2.1%의 청소년이 피해 경험이 있다고 대답하였는데 개별 형태별로는 1.3%(심한 놀림이나 조롱당하기)에서 0.2%(돈이나 물건 강제로 빼앗기기)에 이르는 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다섯 가지 피해 형태 가운데 1차 연도 이후 5차 연도에 이르기까지 가장 극적으로 감소한 것은 ‘돈이나 물건 강제로 빼앗기기’이며, ‘심한 놀림이나 조롱당하기’도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경험을 분석해본 결과 5년 동안 응답자의 3할 정도가 폭력의 피해를 당한 적이 있는 것으로 집계되었는데, 연도별로는 조사 대상자가 중학교 2학년인 1차 연도에 1/5 이상의 청소년이 피해 경험을 보고하여 가장 높은 피해 수준을 나타내었다. 2차 연도의 피해 수준은 1차 연도의 피해 수준의 절반으로 대폭 감소하였으며, 3차 연도에는 다시 2차 연도의 절반 이하로 떨어졌고, 이어서 4차 연도와 5차 연도에도 감소 추세가 지속되었다. 감소폭이 큰 1차 연도에서 3차 연도의 기간은 중학교 2학년에서 3학년으로,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으로 진학하는 기간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조사 대상 청소년이 고등학교 3학년에 달한 5차 연도의 경우에는 청소년 폭력의 피해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전체의 3% 수준으로 1차 연도의 10%에도 미달하는 피해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표 3〉은 가해 경험과 피해 경험이 전혀 무관한 것인지 아니면 서로 관련이 있는지 살펴본 것이다. 여기서는 각 연도별로 다섯 가지 가해 행위 전체 및 다섯 가지 피해 형태 전체를 각각 집계하여 분석하였다. 연도별로 분석해본 결과 5개 연도 모두 피해 경험 유무에 따라 가해 경험 유무가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그 차이는 (연도에 따라 가해 경험 또는 피해 경험이 있는 사례의 수가 아주 낮아 통계치의 선택이나 해석에 주의할 필요가 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이라고 결론내릴 수 있다. 피해 경험이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가해 경험이 있는 응답자의 비율이 높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5년 동안의 경험을 모두 합쳐 분석할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관찰된다. 이를 보면 청소년 폭력에 있어서 가해와 피해는 전혀 무관한 경험이 아니라 서로 관련이 있으며, 가해자와 피해자는 (구분되는 집단인지는 검토가 필요하지만) 부분적으로 중첩되어 있다고 추론할 수 있다.

〈표 3〉 다섯 가지 전체를 합친 피해 경험 유무에 따른 가해 경험 유무 단위 : % (명)

조사 연도	구 분	피해 경험 있음	피해 경험 없음	$\chi^2$ 통계치
1차 연도 (N=3,449)	가해 경험 있음	49.1 (374)	23.7 ( 637)	185.4 ( $p < 0.001$ )
	가해 경험 없음	50.9 (387)	76.3 (2,051)	
2차 연도 (N=3,188)	가해 경험 있음	31.3 (110)	9.8 ( 278)	135.6 ( $p < 0.001$ )
	가해 경험 없음	68.7 (241)	90.2 (2,559)	
3차 연도 (N=3,119)	가해 경험 있음	31.2 ( 44)	6.3 ( 187)	122.0 ( $p < 0.001$ )
	가해 경험 없음	68.8 ( 97)	93.7 (2,791)	
4차 연도 (N=3,121)	가해 경험 있음	20.8 ( 22)	5.2 ( 156)	46.2 ( $p < 0.001$ )
	가해 경험 없음	79.2 ( 84)	94.8 (2,859)	
5차 연도 (N=2,958)	가해 경험 있음	25.4 ( 16)	3.9 ( 112)	69.0 ( $p < 0.001$ )
	가해 경험 없음	74.6 ( 47)	96.1 (2,783)	
5년 합계 (N=2,708)	가해 경험 있음	54.2 (441)	29.6 ( 561)	148.2 ( $p < 0.001$ )
	가해 경험 없음	45.8 (372)	70.4 (1,334)	

〈표 4〉는 다섯 가지 항목을 모두를 합쳐 가해 경험 유무와 피해 경험 유무에 따라 응답자를 네 집단으로 유형을 나눈 것이다(박순진, 2005 및 2006a). 여기서 네 집단 가운데 유형 I(피해 경험도 없고 가해 경험도 없는 집단)은 가해나 피해 모두에 있어 청소년 폭력과 관련이 없는 집단인 반면, 유형 II(피해 경험만 있고 가해 경험은 없는 집단)와 유형 III(피해 경험은 없고 가해 경험만 있는 집단), 그리고 유형 IV(피해 경험도 있고 가해 경험도 있는 집단)는 가해자 또는 피해자로 청소년 폭력과 관련이 있는 집단이다. 〈표 1〉의 가해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이 표의 유형 III과 유형 IV를 합친 것과 같으며, 〈표 2〉의 피해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이 표의 유형 II와 유형 IV를 합친 것과 같다. 가해자의 경우에는 피해와 가해가 중첩된 사람(유형 IV)보다 가해 경험만 있는 사람(유형 III)이 더 많은 반면, 피해자의 경우에는 피해와 가해가 중첩된 사람(유형 IV)이 피해 경험만 있는 사람(유형 II)보다 더 많다.

〈표 4〉 피해-가해의 경험 유무에 따라 구분한 집단 유형의 연도별 추이 단위 : % (명)

집단 유형	1차 연도	2차 연도	3차 연도	4차 연도	5차 연도	5년 합계
유형 I : 피해-가해 없음	59.5 (2,051)	80.3 (2,559)	89.5 (2,791)	91.6 (2,859)	94.1 (2,783)	49.3 (1,334)
유형 II : 순수 피해 유형	11.2 ( 387)	7.6 ( 241)	3.1 ( 97)	2.7 ( 84)	1.6 ( 47)	13.7 ( 372)
유형 III : 순수 가해 유형	18.5 ( 637)	8.7 ( 278)	6.0 ( 187)	5.0 ( 156)	3.8 ( 112)	20.7 ( 561)
유형 IV : 피해-가해 유형	10.8 ( 374)	3.5 ( 110)	1.4 ( 44)	0.7 ( 22)	0.5 ( 16)	16.3 ( 441)
전체 유효 사례수	100.0 (3,449)	100.0 (3,188)	100.0 (3,119)	100.0 (3,121)	100.0 (2,958)	100.0 (2,708)

1차 연도의 경우 유형 I 이 59.5%이며, 다음으로 유형 III 18.5%, 유형 II 11.2%, 유형 IV 10.8%의 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5개 연도 모두 유형 I 이 가장 많은데, 그 비율이 1차 연도 이후 매년 증가하고 있다. 다른 세 가지 유형의 경우 그 비율은 1차 연도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5차 연도의 경우 유형 I 이 94.1%로 아주 높은 수치를 기록한 반면, 유형 III 3.8%, 유형 II 1.6%, 유형 IV 0.5%로 아주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집단 유형의 변화는 최근 몇 년 사이 우리나라에서 청소년 범죄가 크게 감소하고 있는 사실과 무관하지 않은데, 다만 조사 대상자가 중학교 2학년에서 3학년이 되는 1차 연도와 2차 연도 사이에 집단 유형의 분포에 큰 변화가 나타난 점은 공식통계에서 집계된 청소년 범죄의 변화 추세에 비해 훨씬 급격한 변화에 해당하므로 주목할 만하다.

5년을 합계하여 집단 유형을 구분하면 유형 I 이 49.3%이며, 다음으로 유형 III 이 20.7%, 유형 IV 가 16.3%, 유형 II 가 13.7%의 순서로 분포하고 있다. 이것을 개별 연도 별 집단 유형 분포와 비교해보면 유형 II 와 유형 IV 의 분포 순서가 바뀌었으며 유형 III 과 유형 IV 의 격차가 줄어든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유형 II 또는 유형 III 에 해당하는 사람보다 유형 IV 에 해당하는 사람의 연도별 변화가 더 많을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이는 순수 피해 유형 또는 순수 가해 유형에 해당하는 사람에 비해 피해-가해가 중첩된 유형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집단 소속이 보다 가변적(일시적 또는 짧다는 의미)일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다.

〈표 5〉 가해-피해 경험 유무에 따라 구분한 집단 유형의 특성 비교 : 다중범위검정

변수	집단 유형	1차 연도		2차 연도		3차 연도		4차 연도		5차 연도	
		평균	하위 집단								
성별 (여자=0)	유형 I	0.45	A	0.48	B	0.48	A	0.49	A	0.50	A
	유형 II	0.61	B	0.63	A	0.63	AB	0.68	A	0.62	AB
	유형 III	0.54	B	0.57	AB	0.67	AB	0.67	A	0.71	AB
	유형 IV	0.59	B	0.58	AB	0.75	B	0.59	A	0.81	B
부모와의 유대	유형 I	26.50	A	27.18	A	27.24	B	27.36	A	27.74	A
	유형 II	25.36	B	26.66	A	26.03	AB	26.73	A	26.77	A
	유형 III	25.43	B	25.87	A	26.14	B	26.57	A	25.81	A
	유형 IV	24.75	B	26.23	A	23.93	A	26.18	A	25.69	A
낮은 자기통제력	유형 I	10.33	A	10.80	A	10.75	A	10.82	A	11.00	A
	유형 II	10.69	A	11.46	AB	11.10	A	11.17	A	11.66	A
	유형 III	11.61	B	12.66	C	12.67	B	12.90	B	13.60	B
	유형 IV	11.86	B	11.88	B	12.52	B	13.68	B	13.50	B
비행친구	유형 I	0.12	A	0.15	A	0.16	A	0.16	A	0.14	A
	유형 II	0.19	A	0.20	A	0.18	A	0.23	A	0.26	A
	유형 III	0.41	B	0.50	B	0.55	B	0.58	B	0.60	B
	유형 IV	0.40	B	0.47	B	0.57	B	0.73	B	0.56	B
비행적 생활양식	유형 I	0.25	A	0.25	A	0.35	A	0.44	A	0.53	A
	유형 II	0.32	A	0.35	A	0.38	A	0.48	A	0.60	AB
	유형 III	0.50	B	0.66	B	0.75	B	0.81	B	0.88	B
	유형 IV	0.54	B	0.65	B	0.82	B	0.82	B	0.69	AB

주) Scheffe의 방법을 사용하였으며, 하위 집단 구분은  $\alpha=.05$ 를 기준으로 함.

〈표 5〉는 네 개로 구분한 집단 유형에 대해 사회유대이론(Hirschi, 1969), 자기통제 이론(Gottfredson & Hirschi, 1990), 차별교제이론(Sutherland, 1947), 생활양식이론(Cohen & Felson, 1979) 등 주요 범죄이론에서 주목하는 요인들을 사용하여 집단 특성을 검토해본 것이다(변수의 측정에 대해서는 박순진(2005; 2006a)을 참고). 분석 결과를 보면 변수에 따라 집단 유형이 하위 집단으로 잘 구분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 두 개 이상의 하위 집단으로 구분된 경우에도 연도에 따라 구분된 하위 집단이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았다. 낮은 자기통제력, 비행친구, 비행적 생활양식 등의 변수는 네 집단 유형을 (모든 연도에 그렇지는 않지만 대체로 보아) 두 개의 하위 집단으로 비교적 잘 구분해주고 있다. 이에 비해 성별과 부모와의 유대는 네 집단 유형을 두 개 이상의 하위 집단으로 구분할 정도로 집단 유형간 특성 차이가 충분히 크지 않았다.

성별의 경우 네 집단 유형이 5개 연도 모두에서 두 개의 하위 집단으로 뚜렷하게 구분되는 것 같지는 않지만 유형 I 에 비해서 다른 세 유형에서 남자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여자에 비해 남자가 피해자로서든 또는 가해자로서든 청소년 폭력에 더 많이 관련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자기통제력, 비행친구, 생활양식에 있어서는 유형 I 과 유형II vs 유형III과 유형IV로 하위 집단이 구분되었다. 이는 피해의 유무보다 가해의 유무에 따라 집단이 구분되는 것으로 추론할 수 있는데, 유형III과 유형IV로 구분된 하위 집단에서 자기통제력이 낮고 비행친구가 있는 비율이 높으며 비행적 생활양식을 가진 비율이 더 높았다. 여기서 피해 경험이 있는 유형II와 유형IV는 다른 하위 집단으로 분류(이질적)된 반면 가해 경험이 있는 유형III과 유형IV는 같은 하위 집단으로 분류(동질적)된 것은 주목할 만하다.

〈표 6〉 가해 경험 있는 경우 첫 가해 행위가 일어난 연도

단위 : 명 (%)

시작 연도	합 계	유형III	유형IV			
			소계	가해 먼저	동시 시작	피해 먼저
1차 연도	753 (75.1)	404 (72.0)	349 (79.1)	69 (95.8)	280 (92.1)	0 ( 0.0)
2차 연도	132 (13.2)	85 (15.2)	47 (10.7)	2 ( 2.8)	15 ( 4.9)	30 (46.2)
3차 연도	52 ( 5.2)	32 ( 5.7)	20 ( 4.5)	0 ( 0.0)	3 ( 1.0)	17 (26.2)
4차 연도	37 ( 3.7)	22 ( 3.9)	15 ( 3.4)	1 ( 1.4)	4 ( 1.3)	10 (15.4)
5차 연도	28 ( 2.8)	18 ( 3.2)	10 ( 2.3)	0 ( 0.0)	2 ( 0.7)	8 (12.3)
전 체	1,002 (100.0)	561 (100.0)	441 (100.0)	72 (100.0)	304 (100.0)	65 (100.0)

〈표 6〉은 가해 경험이 있는 경우 가해 행위를 처음 한 시기를 분석한 것이다. 표를 보면 가해 경험이 있는 경우 첫 가해 행위가 일어난 시기는 1차 연도가 75.1%이며 2차 연도가 13.2%로 대부분의 가해 청소년이 중학교에 해당하는 시기에 가해 행위를 시작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유형III과 유형IV를 비교해보면 가해 경험만 있는 유형III에 비해서 가해 경험과 피해 경험이 모두 있는 유형IV에서 1차 연도에 가해 행위를 한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IV의 경우에는 폭력과의 관련을 가해로부터 시작한

청소년이 가해와 피해를 함께 시작한 청소년에 비해 1차 연도에 가해 행위를 한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7〉 피해 경험 있는 경우 첫 피해가 발생한 연도

단위 : 명 (%)

시작 연도	합 계	유형II	유형IV			
			소계	가해 먼저	동시 시작	피해 먼저
1차 연도	587 (72.2)	249 (66.9)	338 (76.6)	0 ( 0.0)	280 (92.1)	58 (89.2)
2차 연도	151 (18.6)	83 (22.3)	68 (15.4)	48 (66.7)	15 ( 4.9)	5 ( 7.7)
3차 연도	34 ( 4.2)	19 ( 5.1)	15 ( 3.4)	11 (15.3)	3 ( 1.0)	1 ( 1.5)
4차 연도	27 ( 3.3)	13 ( 3.5)	14 ( 3.2)	9 (12.5)	4 ( 1.3)	1 ( 1.5)
5차 연도	14 ( 1.7)	8 ( 2.2)	6 ( 1.4)	4 ( 5.6)	2 ( 0.7)	0 ( 0.0)
전 체	813 (100.0)	372 (100.0)	441 (100.0)	72 (100.0)	304 (100.0)	65 (100.0)

〈표 7〉은 피해 경험이 있는 경우 첫 피해가 발생한 시기를 분석한 것이다. 표를 보면 피해를 처음 당한 시기는 1차 연도가 72.2%이며 2차 연도가 19.6%로 대부분의 피해 청소년이 중학교에 해당하는 시기에 첫 피해를 당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유형II와 유형IV를 비교해보면 피해 경험만 있는 유형II에 비해서 피해 경험과 가해 경험이 모두 있는 유형IV에서 1차 연도에 피해를 당한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IV의 경우에는 폭력과의 관련을 피해를 당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한 청소년에 비해 가해와 피해를 함께 경험하면서 시작한 청소년이 1차 연도에 피해를 경험한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6〉과 〈표 7〉을 함께 검토하면 가해 행위를 했거나 또는 피해를 당하여 폭력과 관련을 가지게 된 청소년이 가해 행위와 피해 경험 가운데 어느 것부터 시작하였는지, 그리고 첫 가해 행위 또는 첫 피해 경험을 한 연도를 알 수 있다. 폭력과의 관련을 가해 행위로부터 시작한 청소년은 633명(유형III 561명, 유형IV의 ‘가해 먼저’ 72명)이며, 폭력과의 관련을 피해 경험으로부터 시작한 청소년은 437명(유형II 372명, 유형IV의 ‘피해 먼저’ 65명)이고, 폭력과의 관련을 피해 경험과 가해 경험의 중첩으로 시작한

청소년은 유형Ⅳ의 ‘동시 시작’ 304명이다. 즉, 가해 행위로부터 폭력과 관련을 가지게 된 청소년이 피해 경험으로부터 시작한 청소년이나 피해 경험과 가해 경험의 중첩으로 시작한 청소년에 비해 많다. 1차 연도에 폭력과 관련을 가지게 된 비율은 가해 또는 피해만 있는 청소년에 비해 가해와 피해가 중첩된 청소년이, 피해 경험이 있는 청소년에 비해 가해 행위를 한 청소년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8〉 가해 경험 있는 경우 가해 행위가 지속된 횟수

단위 : 명 (%)

지속 횟수	합 계	유형Ⅲ	유형Ⅳ			
			소계	가해 먼저	동시 시작	피해 먼저
1개 연도	657 (65.6)	410 (73.1)	247 (56.0)	32 (44.4)	164 (53.9)	51 (78.5)
2개 연도	122 (12.2)	50 (8.9)	72 (16.3)	12 (16.7)	55 (18.1)	5 (7.7)
3개 연도 이상	223 (22.3)	101 (18.0)	122 (27.7)	28 (38.9)	85 (28.0)	9 (13.8)
전 체	1,002 (100.0)	561 (100.0)	441 (100.0)	72 (100.0)	304 (100.0)	65 (100.0)

청소년 비행 내지 범죄는 개인의 인생에서 청소년기에 나타나는 발달적인 특성이라는 맥락에서 이해되기도 한다. 이와 관련하여 〈표 8〉은 폭력 비행의 가해 경험이 있는 경우 그런 경험의 지속 연도를 분석한 것이다. 가해 경험이 있는 청소년을 전체적으로 보면 가해 행위가 지속된 횟수가 1개 연도인 경우가 65.6%로 다수를 차지하며 2개 연도 이상에 걸쳐 가해 행위를 한 경우가 34.4%였다. 유형Ⅲ과 유형Ⅳ를 비교하면 가해 행위만 있는 청소년에 비해 가해와 피해가 중첩된 청소년의 경우에 2개 연도 이상에 걸쳐 가해 행위가 지속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Ⅳ 가운데에서는 ‘가해 먼저’의 경우에 2개 연도 이상에 걸쳐 가해 행위가 지속되는 비율이 가장 높은 반면 ‘피해 먼저’의 경우에는 1개 연도에만 가해 행위가 일어나는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폭력의 가해 경험이 있는 청소년 가운데 다수는 학교 재학 시기에 해당하는 특정 1개 연도에 일시적으로 폭력 행위를 할 뿐 폭력 행위를 장기적으로 지속하지는 않았다. 다만, 가해와 피해가 중첩된 청소년은 가해 행위만 한 청소년에 비해 여러 해에 걸쳐 폭력 행위를 지속하는 경향이 더 높은 점은 주목할 만하다.

〈표 9〉 피해 경험 있는 경우 피해 경험이 지속된 횟수

단위 : 명 (%)

지속 횟수	합 계	유형 II	유형 IV			
			소계	가해 먼저	동시 시작	피해 먼저
1개 연도	563 (69.2)	277 (74.5)	286 (64.9)	59 (81.9)	203 (66.8)	24 (36.9)
2개 연도	117 (14.4)	50 (13.4)	67 (15.2)	6 ( 8.3)	40 (13.2)	21 (32.3)
3개 연도 이상	133 (16.4)	45 (12.1)	88 (20.0)	7 ( 9.7)	61 (20.1)	20 (30.8)
전 체	813 (100.0)	372 (100.0)	441 (100.0)	72 (100.0)	304 (100.0)	65 (100.0)

〈표 9〉는 폭력의 피해를 당한 경험이 있는 경우 그런 경험이 지속된 횟수를 분석한 것이다. 피해 경험이 있는 청소년을 전체적으로 보면 지속된 횟수가 1개 연도인 경우가 69.2%이며 2개 연도 이상에 걸쳐 피해가 발생한 경우가 30.8%였다. 유형 II와 유형 IV를 비교하면 피해 경험만 있는 청소년에 비해 피해와 가해가 중첩된 청소년의 경우에 피해 경험이 2개 연도 이상에 걸쳐 지속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 IV 가운데에서는 특히 ‘피해 먼저’의 경우에 2개 연도 이상에 걸쳐 피해 경험이 지속된 비율이 63.1%로 다른 집단과 큰 차이를 보였다. 이에 비해 ‘가해 먼저’의 경우에는 2개 연도 이상에 걸쳐 피해 경험이 지속된 비율이 20%에도 미달하였다. 즉, 피해 경험은 전체적으로 보아 특정 1개 연도에 국한되는 경우가 다수를 차지하지만 유형 IV 가운데 일부(피해 먼저)에 있어서는 피해 경험이 다른 청소년에 비해 장기적으로 지속하였다.

〈표 10〉 5년 합계한 집단 유형과 5차 연도의 집단 유형 비교

단위 : 명 (%)

5차 연도 \ 5년 합계	유형 II	유형 III	유형 IV			
			소계	가해 먼저	동시 시작	피해 먼저
유형 I	351 (94.4)	505 (90.0)	366 (83.0)	53 (73.6)	270 (88.8)	43 (66.2)
유형 II	21 ( 5.6)	0 ( 0.0)	19 ( 4.3)	4 ( 5.6)	9 ( 3.0)	6 ( 9.2)
유형 III	0 ( 0.0)	56 (10.0)	41 ( 9.3)	11 (15.3)	19 ( 6.3)	11 (16.9)
유형 IV	0 ( 0.0)	0 ( 0.0)	15 ( 3.4)	4 ( 5.6)	6 ( 2.0)	5 ( 7.7)
전 체	372 (100.0)	561 (100.0)	441 (100.0)	72 (100.0)	304 (100.0)	65 (100.0)

〈표 10〉은 1차 연도부터 5차 연도 사이에 폭력의 가해 행위를 한 적이 있거나 피해를 당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의 5차 연도 현재 상태를 분석한 것이다. 이 표를 보면 가해 행위 또는 피해 경험이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다. 5차 연도에 유형 I 이 된 청소년의 경우에는 현재 최종적인 상태가 가해 행위 내지 피해 경험이 단절된 상태라는 것을 의미한다. 5차 연도 현재 단절된 상태인 비율은 유형 II가 가장 높고, 유형 IV가 가장 낮다. 유형 IV의 경우 5차 연도 현재 지속되고 있는 비율은 ‘피해 먼저’가 가장 높고 다음으로 ‘가해 먼저’, 그리고 ‘동시 시작’이 가장 낮았다. 유형 IV의 경우 (가해, 피해와 관련이 없어진 유형 I 을 제외하면) 5차 연도의 최종적인 집단 유형으로는 유형 III(가해자화가 일어난 경우라고 이름 붙여 볼 수 있을 듯함)이 다른 두 집단 유형에 비해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표 11〉은 연도별로 청소년 폭력의 피해와 가해의 경험과 관련하여 구분한 집단 유형의 변화를 분석한 것이다. 이 표를 보면 네 개로 구분한 각 유형에 대하여 연도별로 집단 유형의 유지와 변화를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다. 청소년 폭력과 전혀 관련이 없는 유형 I 에 속한 청소년들은 집단 유형을 유지하는 비율이 절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연도를 거듭하면서 그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집단 유형으로 이출되는 규모에 비해 다른 집단 유형으로부터 이입되는 규모가 커서 순증가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이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조사 기간 동안 청소년 폭력의 가해와 피해 모두 크게 감소한 현상과 관련되어 있는데, 조사 대상 청소년 가운데 폭력과 관련된 사람이 절대적으로 적을 뿐만 아니라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줄어드는 추세가 뚜렷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청소년 폭력과 관련이 있는 유형 II, 유형 III, 유형 IV 모두 집단 유형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 수에 비해 집단 유형의 변화를 경험한 사람의 수가 더 많은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아울러 세 집단 모두 이입보다 이출의 규모가 더 큰 것으로 집계되어 각 집단에 속한 사람의 수가 해마다 줄어들고 있다. 이를 보면 세 집단 모두 해당 집단에 속한 사람이 연도별로 크게 달라지며, 조사 대상자들의 비행 관련성이 안정적인 경향을 나타내지 않고 연도에 따라 큰 변화를 보인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유형 IV의 경우에는 네 집단 유형 가운데 집단 유형 유지 비율이 가장 낮을 뿐만 아니라 해를 거듭하면서 계속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내어 안정적인 집단으로 보기 어려운 불안정한 유형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11〉 연도별 집단 유형의 분포 변화 분석

단위 : 명 (% , 배)

구 분		유형 I	유형 II	유형 III	유형 IV	합계	
1차 연도 ↓ 2차 연도	집단 유형 유지 (유지 비율)	1,689 (88.6)	70 (19.4)	100 (17.4)	40 (11.6)	1,899 (59.6)	
	집단 유형 변화 (ratio)	이입	870 (0.52)	171 (2.44)	178 (1.78)	70 (1.75)	1,289 (0.68)
		이출	218 (0.13)	291 (4.16)	474 (4.74)	306 (7.65)	1,289 (0.68)
	증감		652	△120	△296	△236	-
2차 연도 ↓ 3차 연도	집단 유형 유지 (유지 비율)	2,262 (93.2)	28 (12.7)	51 (19.5)	7 (6.9)	2,348 (78.0)	
	집단 유형 변화 (ratio)	이입	432 (0.19)	66 (2.36)	131 (2.57)	34 (4.86)	663 (0.28)
		이출	166 (0.07)	193 (6.89)	210 (4.12)	94 (13.43)	663 (0.28)
	증감		266	△127	△79	△60	-
3차 연도 ↓ 4차 연도	집단 유형 유지 (유지 비율)	2,535 (94.6)	22 (23.4)	47 (26.3)	3 (7.0)	2,607 (87.0)	
	집단 유형 변화 (ratio)	이입	218 (0.09)	57 (2.59)	95 (2.02)	19 (6.33)	389 (0.15)
		이출	145 (0.06)	72 (3.27)	132 (2.81)	40 (13.33)	389 (0.15)
	증감		73	△15	△37	△21	-
4차 연도 ↓ 5차 연도	집단 유형 유지 (유지 비율)	2,530 (95.8)	9 (11.8)	35 (25.2)	1 (4.8)	2,575 (89.5)	
	집단 유형 변화 (ratio)	이입	177 (0.07)	37 (4.11)	74 (2.11)	15 (15.00)	303 (0.12)
		이출	112 (0.04)	67 (7.44)	104 (2.97)	20 (20.00)	303 (0.12)
	증감		65	△30	△30	△5	-

주) ratio는 집단 유형 변화 (즉, 이입 또는 이출)의 집단 유형 유지 에 대한 비를 나타냄.

순수 피해 유형(유형 II)의 경우 고등학교 1학년에서 고등학교 2학년으로 진급하는 시기를 제외한 다른 시기, 즉 중학교 2학년에서 3학년으로, 중학교 3학년에서 고등학교 1학년으로,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에서 3학년으로 진급하는 시기에는 집단 유형 유지 비율이 줄어들었다. 고등학교 1학년에서 2학년으로 진급하는 시기에는 해당 유형의 집단 유형 유지 비율이 다른 연도와는 큰 차이를 보이며 증가하였는데, 같은 시기에 이입과 이출의 규모 격차 역시 대폭 줄어든 점이 주목할 만하다.

순수 가해 유형(유형Ⅲ)의 경우 중학교 2학년에서 고등학교 2학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 집단 유형 유지 비율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특히 고등학교 1학년에서 고등학교 2학년으로 진급하는 시기에 두드러진 증가를 보여 해당 유형의 1/4을 넘는 수준에 이르렀는데, 고등학교 2학년에서 고등학교 3학년으로 진급한 시기에도 큰 변화 없이 그 비율을 유지하고 있다. 고등학교 1학년에서 2학년으로 진급하는 시기에는 이입과 이출의 규모 격차 역시 대폭 줄어들었으며, 이 시기에 줄어든 이입과 이출의 격차 수준이 고등학교 2학년에서 고등학교 3학년으로 진급하는 시기에도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 4. 맺는말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 따르면 청소년에게 있어 폭력 비행은 드문 경험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5년의 기간 동안 1/3 이상의 청소년이 폭력 비행을 저질러본 경험이 있으며, 3할 정도의 청소년이 폭력 피해를 당한 적이 있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1차 연도의 경우 1/4 이상의 청소년이 가해 경험이 있으며, 1/5 이상의 청소년이 피해 경험이 있었다. 1차 연도 이후 청소년 폭력의 가해 수준과 피해 수준은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 가해 수준은 1차 연도와 2차 연도 사이에 절반 이하로 감소하였다. 피해 수준 역시 2차 연도에 1차 연도의 절반으로 대폭 감소하였으며, 3차 연도 이후에도 감소 추세가 지속되었다.

분석 결과 피해 경험과 가해 경험은 부분적으로 중첩되어 있으며 서로 관련을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가해자의 44%는 피해 경험이 있으며 피해자의 54%는 가해 경험을 가지고 있었다. 피해 경험이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는 경우에 비해 가해 경험이 있는 비율이 높았다. 이를 보면 청소년 폭력 비행에 있어서 피해자와 가해자는 서로 엄격히 구분되는 별개의 행위자라고 볼 수 없으며 가해자와 피해자를 이분법적으로 파악하여서는 청소년 폭력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즉, 청소년 폭력 비행에 있어서 가해자의 일부는 다른 경우에 피해자가 되기도 하며 피해자의 경우에도 단순히 피해를 당하는 수동적인 행위자에 머무르지 않는다. 이러한 사실은 한국청소년패널조사의 연차가 거듭되면서 청소년 폭력비행의 가해 경험과 피해 경험은 크게 줄어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가해 경험 유무와 피해 경험 유무에 따라 조사 대상자를 네 가지 집단 유형으로 구분해본 결과 5개 연도 모두 유형 I 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그 비율은 1차 연도 이후 매년 증가하였다. 이에 반해 청소년 폭력과 관련된 다른 세 유형의 경우 그 비율은 1차 연도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 이러한 집단 유형 변화는 최근 몇 년 사이 우리나라에서 청소년 범죄가 크게 감소하고 있는 사실을 반영한다. 다만, 조사 대상자가 중학교 2학년에서 3학년이 되는 1차 연도와 2차 연도 사이에 공식통계에서 집계된 청소년 범죄의 변화 추세에 비해 훨씬 급격한 집단 유형의 분포 변화가 나타났다.

네 개로 구분한 집단 유형을 분석해본 결과, 자기통제력, 비행친구, 생활양식 등의 비행 관련 요인에 의해 유형 I 과 유형 II vs 유형 III 과 유형 IV 로 하위 집단이 구분되었다. 이를 보면 피해의 유무보다 가해의 유무에 따라 집단이 구분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유형 III 과 유형 IV 로 구분된 하위 집단에서 자기통제력이 낮고 비행친구가 있는 비율이 높으며 비행적 생활양식을 가진 비율이 더 높았다. 피해 경험이 있는 유형 II 와 유형 IV 는 다른 하위 집단으로 분류(이질적)된 반면 가해 경험이 있는 유형 III 과 유형 IV 는 같은 하위 집단으로 분류(동질적)되었다. 즉, 청소년 폭력에 있어서 피해자는 두 개의 이질적인 집단으로 구분되는 반면 가해자는 피해 경험의 유무와 무관하게 하나의 동질적인 집단으로 판단할 수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가해와 피해의 중첩은 청소년 폭력의 가해자가 경우에 따라 피해자가 되기도 하며, 피해자의 경우에는 일부가 실제로는 가해자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가해 경험이 있는 경우 중학교에 해당하는 나이에 가해 행위를 처음 시작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피해 경험의 경우에도 대부분의 피해 청소년이 중학교에 해당하는 시기에 첫 피해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1차 연도에 폭력과 관련을 가지게 된 비율은 가해 또는 피해만 있는 청소년에 비해 가해와 피해가 중첩된 청소년이, 피해 경험이 있는 청소년에 비해 가해 행위를 한 청소년이 더 높다. 가해 행위로부터 폭력과 관련을 가지게 된 청소년이 피해 경험으로부터 시작한 청소년이나 피해 경험과 가해 경험의 중첩으로 시작한 청소년에 비해 많았다.

가해 경험이 있는 청소년 가운데 다수는 중고등학교 재학 시기에 해당하는 연령에서 특정 1개 연도에 일시적으로 폭력 행위를 할 뿐 2개 연도 이상 폭력 행위를 지속하지

는 않았다. 다만, 가해와 피해가 중첩된 청소년은 가해 행위만 한 청소년에 비해 여러 해에 걸쳐 폭력 행위를 지속하는 경향이 더 높았다. 피해 경험은 전체적으로 보아 특정 1개 연도에 국한되는 경우가 다수를 차지하였는데, 유형Ⅳ 가운데 일부(피해 먼저)에 있어서는 피해 경험이 있는 다른 청소년에 비해 다소 장기적으로 지속되었다. 이러한 사실은 가해와 피해의 중첩이 청소년 폭력 문제를 보다 장기적으로 지속하게 하는 요인이라는 사실을 나타내고 있다.

집단 유형의 변화를 분석한 결과 청소년 폭력과 관련이 있는 유형Ⅱ, 유형Ⅲ, 유형Ⅳ의 경우에는 집단 유형을 유지하는 사람보다 집단 유형의 변화를 경험한 사람이 더 많고, 세 집단 모두 이입보다 이출의 규모가 더 커서 각 집단에 속한 사람의 수가 연도마다 줄어들었다. 청소년 폭력은 그것이 가해이든 피해이든 다분히 ‘움직이는’ 성격이 우세하며 만성적이고 고착화된 형태를 나타내지 않는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다만, 세 집단 유형 가운데 유형Ⅲ에 해당하는 가해자의 경우 가해 행위를 지속하는 비율이 고등학교 2학년에 이르기까지 꾸준히 증가하였으며 고등학교 2학년 이후에는 이입과 이출의 격차 역시 크지 않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 고착화의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집단 유형의 변화를 연도별로 검토해본 결과 청소년 폭력과 관련하여 가장 주의하여야 할 시기는 가해의 경우와 피해의 경우 모두에 있어 고등학교 1학년에서 고등학교 2학년으로 진급하는 시기라고 평가할 수 있었다.

## 참고문헌

- 기광도. 2004. “범죄 및 피해의 중첩성에 관한 분석”. [피해자학연구, 제12권 제2호. 한국 피해자학회.
- 김성언. 2006. “청소년 패널조사에서의 일탈률 변화의 실태와 원인에 대한 검토 의견”. [2006년 한국청소년패널(KYPS) 제3차 콜로키움-집담회: 한국청소년패널조사 (KYPS)에서의 일탈률 변화의 실태 및 원인. 한국청소년개발원.
- 김준호·박정산·김은경. 1997. [학교주변 폭력의 실태와 대책.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김준호·황지태. 2002. “학교폭력 피해자 조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피해자학연구, 제10권 제2호. 한국피해자학회.
- 노성호. 2006. “청소년패널조사에서 비행감소에 대한 몇가지 분석”. [2006년 한국청소년패널(KYPS) 제3차 콜로키움-집담회: 한국청소년패널조사(KYPS)에서의 일탈률 변화의 실태 및 원인. 한국청소년개발원.
- 노성호·이성식. 2003. “청소년의 폭력범죄피해요인에 관한 일 연구”. [피해자학연구, 제11권 제2호. 한국피해자학회.
- 대검찰청. 2007. [범죄분석].
- 민수홍. 2006. “한국청소년패널조사에서 청소년들의 비행 및 범죄의 자기보고에 영향을 미친 요인분석”. [2006년 한국청소년패널(KYPS) 제3차 콜로키움-집담회: 한국청소년패널조사(KYPS)에서의 일탈률 변화의 실태 및 원인. 한국청소년개발원.
- 박순진. 2005. “청소년 폭력 비행에 있어서 가해-피해의 연계”. [피해자학연구, 제13권 2호. 한국피해자학회.
- 박순진. 2006a. “청소년 폭력 비행에 있어서 피해-가해 연계의 변화”. [형사정책연구, 제17권 제1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박순진. 2006b. “한국청소년패널조사에서 조사된 비행을 하락에 관한 논의”. [2006년 한국청소년패널(KYPS) 제3차 콜로키움-집담회: 한국청소년패널조사(KYPS)에서의 일탈률 변화의 실태 및 원인. 한국청소년개발원.
- 박철현. 2006. “비행의 변화량에 미치는 관련요인들의 효과”. [2006년 한국청소년패널(KYPS) 제3차 콜로키움-집담회: 한국청소년패널조사(KYPS)에서의 일탈률 변화의 실태 및 원인. 한국청소년개발원.

- 법무연수원. 2008. [범죄백서].
- 이순래. 2006. “토론: 한국청소년패널조사에서 청소년들의 비행 및 범죄의 자기보고에 영향을 미친 요인분석”. [2006년 한국청소년패널(KYPS) 제3차 콜로키움-집담화: 한국청소년패널조사(KYPS)에서의 일탈률 변화의 실태 및 원인. 한국청소년개발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08. 한국청소년패널조사(KYPS) 중2 패널 1-5차년도 User's Guide(미간행자료).
- Cohen, Lawrence & Marcus Felson. 1979. “Social change and crime rate trends: a routine activities approach.”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44: 588-608.
- Gottfredson, Michael & Travis Hirschi. 1990. *A General Theory of Crime*. Stanford University Press.
- Hirschi, Travis. 1969. *Causes of Delinquency*.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Lauritsen, Janet L., Robert J. Sampson & John H. Laub. 1991. “The link between offending and victimization among adolescents.” *Criminology*, 29: 265-292.
- McDermott, Joan. 1983. “Crime in the school and in the community: offenders, victims and fearful youth.” *Crime and Delinquency*, 29: 270-283.
- Moffitt, Terrie E. 1993. “Adolescence-limited and life-course-persistent antisocial behavior : a developmental taxonomy.” *Psychological Review* 100(4).
- Patterson, G. R., Barbara D. DeBaryshe, & Elizabeth Ramsey. 1989. “A developmental perspective on antisocial behavior.” *American Psychologist* 44(2).
- Sampson, Robert J. & John H. Laub. 1997. “A life-course theory of cumulative disadvantage and the stability of delinquency.” in T. P. Thornberry (ed). *Developmental Theories of Crime and Delinquency : Advances in Criminological Theory*, vol 7. Transaction Publishers.
- Singer, Simon J. 1981. “Homogeneous victim-offender populations: a review and some research implications.” *Journal of Criminal Law & Criminology*, 72: 779-788.
- Sutherland, Edwin H. 1947. *Principles of Criminology*. Philadelphia: Lippincott.
- Thornberry, Terence. P. 1987. “Toward an interactional theory of delinquency.” *Criminology* 25.

## Developing Patterns of Victim-Offending Experiences in Adolescent Violence

Park, Soon-Jin<sup>\*</sup>

As results of victimization surveys, it was found that there is significant overlap or linkage between offending and victimization in adolescent violence. The study examines the changing patterns of offending and victimization in the course of adolescent development which were not fully discussed in the previous studies. It analyses the 5 waves of panel data for the 8th grade students in Korean Youth Panel Study.

The experience of victimization increases the probability of offending in every 5 waves of the panel data. It can be said that there are some reciprocal relationships between offending and victimization in adolescent violence. The victim and the offender are not fully different but some overlapping categories of group. It is not uncommon in adolescent violence that the perpetrator in one case can be the victim in other case.

Four types of group which are distinguished according to experiences of victimization and offending can be classified into two subgroups. While victim group without offending is different from victim group with offending, offender group without victimization is similar to offender group with victimization. The linkage between offending and victimization seems to be more related to offending than victimization.

The analysis of memberships in victim and offending reveals that most of the adolescent violence is rather temporary than permanent. Neither the offending nor victimization is chronic. But the offender group without victimization has higher risk of being a chronic perpetrator than other three types of group. The victim

---

<sup>\*</sup> 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Police Administration, Daegu University; Ph.D. in Sociology

and offender in their 10th to 11th grade transition have higher risks of being chronic victim or chronic offender.

❖ Key words : adolescent violence, school violence, victim-offending linkage, crime victimization, Korean Youth Panel Study(KYPS)